인문연구 제96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6, No. 1, pp.111~148
http://dx.doi.org/10.21211/JHUM.96.5

1884년 청나라의 베트남정책과 권력구조 변화

이영옥*

〈차 례〉

1. 머리말
2. 베트남정책과 군사충돌
3. 권력갈등과 갑신역추
4. 맺음말: 외교, 권력 그리고 언론

【국문초록】

1864년 청나라는 서양 무기의 도움을 받아서 태평천국을 진압하였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 열강을 막아내기 위하여 양무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884년에 軍機處 구성원이 모두 교체되는 甲申易樞가 일어났고,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 두 사건의 관계를 추적해보면, 청나라의 정치세력이 대외문제를 어떻게 국내정치에 이용하였고, 당시 언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당시 청나라 정치가 안고 있던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884년 4월 8일, 慈禧太后는 자리를 보전하는데 급급한 “복지부동”의 자세를 문제 삼아 恭親王을 비롯한 軍機處의 구성원을 전원 파면하는 甲申易樞를 단행하였다. 軍機處는 軍機大臣이 아닌 醇親王 奕譞에게 사실상 지휘하게 함으로써 정식 관직 밖에 태후의 사적인 秘線이 만들어졌다.

1884년 5월 11일, 天津에서 李鴻章과 푸니에르는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의 조약 인정, 청나라 군대 철수, 배상금 불문 등을 내용으로 李福協定을 체결하였다. 새로운 구성원들이 첫 번째로 진행한 일은 과거와 같이 李鴻章을 통해 프랑스와 협상하는 것이었고, 慈禧太后는 그것을 재가하였다. 결국 慈禧太后는 醇親王과 힘을 합쳐 외교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빌미로 恭親王을 제거한 것이었다. 결국 대외문제는 국내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지렛대로 이용되었고, 보수파의 양무와 외교에 대한 공격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申報』는 대체로 청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베트남에서 프랑스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申報』는 베트남 문제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비교적 상세하게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정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申報』의 관계자가 甲申易樞에 대해 인지한 것은 5일 뒤인 4월 13일이었고, 기사가 실린 것은 4월 15일이었다. 이점은 『申報』가 조정 내부의 소식은 공식적인 「京報」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청나라 권력구조의 변화를 더 입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의 정책까지 포함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甲申易樞, 軍機處, 청프전쟁, 恭親王, 慈禧太后, 보수파, 李鴻章, 申報

1. 머리말

1861년부터 1911년까지 50년의 청나라 역사에서 1884년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1861년 慈安·慈禧太后와 恭親王은 肅順 등 대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다음 동치제를 보좌하여 태평천국을 진압하였고, 曾國藩·左宗棠·李鴻章 등이 지방에서 군수공장을 건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양무운동을 지지하였다. 1874년, 동치제가 친정을 시작하고 2년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나면서 정치가 불안해질 수 있었지만, 그 위기도 醇親王의 아들이 동치제의 양자가 되어 제위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봉합되었다. 20여 년 동안, 청나라는 청영아편전쟁, 태평천국, 영·프연합군의 침략 등 대내외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처럼 보였고, 중흥의 시대로 불리기도 하였다.[1)]

1884년이 되면 다시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위기는 밖으로부터 다가왔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거점으로 여겼고, 이미 1858년 베트남을 침략하여 1867년부터 남베트남 6개의 성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 뒤에도 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결국 1883년 북베트남을 점령하여 베트남 전역을 통제하게 되었다.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자, 청나라는 베트남에 대한 종주국으로서 지위를 잃었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무력으로 점령하자,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남부 지역이 동요하게 되었다.[2)]

---

1) 洋務運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동향은 다음을 참조. 邱志紅, 「60餘年來國內洋務運動史研究述評」, 『蘭州學刊』 2014-12. 양무운동을 추진하고 동치중흥을 말하게 된 사상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史革新, 「程朱理學與晚淸"同治中興"」, 『近代史研究』 2003-6. 이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윌리엄 T. 로, 기세찬 옮김, 『하버드 중국사 청: 중국최후의 제국』, 너머북스, 2014, 356~384쪽.

2) 청프전쟁은 관심을 많이 끄는 주제라기보다 청일전쟁의 전주곡 정도로 여

청나라 관료 사회는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에 대한 대응을 놓고 강경론과 유화론으로 대립하였다. 대외적인 위기가 청나라 사회를 단결시키기보다 분열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청나라가 프랑스에 선전을 포고하기 전에 청나라 권력구조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甲申易樞가 일어났다.[3)]

청나라에서 광서시대 이후 권력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가는 대체로 실록에 남겨진 기록, 관련된 인물들의 문집에 담긴 내용을 통해 분석되었다.[4)] 실록과 문집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권력구조의 변화나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당시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데 한계를 지닐 수 있다. 1870년대 이후에는 실록과 문집 이외에도 청나라의 정치상황이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등장하였다. 신문이라는 매체가 나타난 것이다. 광서시대 청나라의 권력구조 변화를 포함하여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신문은 『申報』이다.[5)]

겨졌고, 지금도 큰 변화는 없다. 청프전쟁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葛夫平, 「新中國成立以來的中法戰爭史研究」, 『史學月刊』 2014-07; 黃振南, 「中法戰爭史研究百年回眸」, 『近代史研究』 2002-03; 廖宗麟, 「試論中法戰爭在中國近代史的地位和作用」, 『學術論壇』 2000-06.

3) 1884년 프랑스와의 관계를 둘러싼 청나라 관료사회의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영옥, 「洋務, 淸流 그리고 甲申易樞(1884)」, 『인문연구』, 인문과학연구소, 2019; 施渡橋, 「論中法戰爭中的主戰派與主和派」, 『軍事歷史研究』 1993-04; 孔祥吉, 「甲申易樞與中法戰爭」. 『中國人民大學學報』 1989-01.

4) 광서시대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청나라 권력관계의 변화를 실록과 문집을 분석하여 접근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崔熙在, 「光緖初 體制整備에 관한 一試論」, 『東洋學』 25, 1995; 「光緖初 洋務經世論의 발전과 분기」, 『단국대 논문집』 30, 1996; 「光緖初 淸議經世論이 발전과 그 지향」, 『史學志』 第29輯, 1996; 「光緖初 權力關係의 변화에 대하여」, 『동양사학연구』 제55집, 1996.

5) 신문사의 사주 영국인 어니스트 메이저Ernest Major는 『申報』의 경영에 중국인들을 참여시켰고, 蔣芷湘·錢昕伯 등 문인들에게 편집을 맡겼다. 메이저는 언론으로서 독자성과 함께 중국적인 특색을 지닌 신문을 만들려고

『申報』는 1872년 4월 창간되어 청나라의 왕조시대가 저물어가는 과정을 보도하였고, 중화민국 수립 이후에는 사회가 격렬하게 요동치는 상황들을 담아내었다. 상업광고를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정치의 입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6] 위로는 부강한 황제의 나라[皇朝]를 위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아래로는 일반 백성[小民]의 고통을 헤아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7] 『申報』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논설과 기사는 청나라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글의 주제는 청나라의 마지막 50년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1884년에 일어난 권력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淸實錄』나 『中法戰爭』을 비롯한 자료 이외에도 『申報』에 게재된 기사들을 활용하였다. 먼저, 베트남문제에 대해 청나라의 정치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정책을 내놓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군사적 충돌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었을 때 나타난 권력구조의 변화가 갖는 의미와, 당시 언론이

하였다. 『申報』 창간 초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책들을 참고. 黃瑚, 『中國新聞事業發展史』, 復旦大學出版社, 2001, 25~26쪽; 梁家祿 外, 『中國新聞業史』, 廣西人民出版社, 1984, 35~36쪽; 方漢奇, 『中國近代報刊史』上冊, 山西人民出版社, 1981, 42쪽.

6) 창간호는 600부 발행되었고, 4년 뒤에 2,000부로 성장하였다. 메이저가 17년 동안 『申報』를 경영하면서 자본액이 187.5배 성장하였다. 『申報』의 경제적 성장과 성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羅國干, 「美查時期『申報』的經營之道」, 『廣西大學學報』 2006-03. 『申報』가 풍족한 재정을 바탕으로 언론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程麗紅, 「美查與中國近代報業史」, 『長春大學學報』 2005-05.

7) 『申報』의 창간호는 신문을 창간한 목적과 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점은 다음을 참조. 「本館告白」·「本館條例」, 『申報』(1872.04.30.), 1면. 『申報』는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에서 제작한 申報數據庫를 이용하였음(동북아역사재단 소장).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글을 통해 역사에서 어느 한 해, 그 해에 일어난 사건들, 그 사건들과 관련된 인물들의 행위 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베트남정책과 군사충돌

1) 베트남정책의 논쟁

1884년 3월, 예년보다 겨울이 포근해서 봄도 빨리 찾아왔다.[8] 베이징의 일반 백성들은 골목길[胡同]의 목이 좋은 곳에서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이웃들과 봄볕 쬐면서 두런두런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외곽의 사찰에 봄꽃을 구경하러 다녔다.[9] 백성들이 봄볕의 따뜻함에 만족하고 있을 때, 청나라의 책임 있는 관리들은 봄을 즐길 만한 여유가 없었다. 멀리 베트남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으로 관료사회가 어수선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거리낌 없이 군대를 동원하였고, 1880년대에 들어서서 노골적으로 베트남을 자국의 식민지로 만들었다.[10] 베트남은 청나라에게 전략적으로 중

---

8) 184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청나라는 소빙하기에 있었고 겨울에는 지독한 추위가 몰아쳤다. 1880년 이후 청나라의 기후는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1900년까지 온난한 기후를 보여주었다. 유소민 지음, 박기수・차경애 옮김, 『기후의 반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pp.201-202.

9) 베이징은 서울보다 높은 북위 40도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봄과 겨울에는 바람을 막을 수 있다면 따뜻한 햇볕을 즐길 수 있고, 여름에는 그늘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베이징의 사계절은 다음을 참조. 린위탕, 김정희 옮김, 『베이징이야기』, 이산, 2001, pp.19-29.

10) 프랑스는 이미 제1,2차 사이공조약(1862・1874년)을 통해 베트남 남부 3

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였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반도를 청나라로 다가가는 발판으로 삼고 있었는데, 베트남은 청나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프랑스군의 거친 공세가 이어지자, 청나라 관료들 사이에서 프랑스에 대한 대책을 놓고 주전론, 주화론, 절충론 등 세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山西巡撫 張之洞은 프랑스가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한다고 여겼다. 그는 일부 관료들이 청나라 군사력의 수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프랑스 군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경계하였다.[11] 다만 청나라 군대가 과거 청영아편전쟁시기와는 달리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강화하였고,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있으며, 전략물자 보급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에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다고 보았다.[12]

駐英大使 曾紀澤은 프랑스가 베트남을 차지하고 나면 청나라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세력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주전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는 청나라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

성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1879년, 프랑스의 코친차이나총독은 다른 나라가 베트남을 차지하기 전에 행동을 시작하여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82년 초, 사이공 주둔 프랑스군이 자국민의 안전을 명목으로 통킹에 파견되었다. 뜨 득 황제는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였고, 청나라 군대는 흑기군과 연합하여 프랑스군에 대항하였다. 186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프랑스가 진행한 제국주의적 침략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유인선, 『베트남의 역사』, 이산, 2018, pp.270-279; J. F. Cady, "XVI.Imperialism Takes Root in Indo-China", *The Roots of French Imperialism in Eastern Asia,* Ithaca, N.Y, 1967.

11) 청프전쟁 전후 張之洞의 양국 군사력에 대한 시각은 다음을 참조. 李侃・李占領, 「淸流派與中法戰爭」, 『社會科學戰線』 1996-01; 唐上意, 「中法戰爭中的張之洞」, 『歷史硏究』 1983-05.

12) 張之洞과 비슷한 생각을 지닌 인물로 左宗棠과 陳寶琛이 있다. 당시 主戰派와 主和派의 상황은 다음을 참조. 施渡橋, 「論中法戰爭中的主戰派與主和派」, 『軍事歷史硏究』 1999-03.

고 프랑스 군사 행동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게 된다면 프랑스가 청나라와의 전쟁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여겼다.[13] 다른 한편으로 외교적인 해결책도 모색하였다. 그는 베트남이 프랑스의 청나라 공사관에 관리를 파견하여 청나라의 속국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서 청나라에 경제적 이익을 갖고 있던 영국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4]

直隸總督兼北洋大臣 李鴻章은 베트남을 놓고 협상을 통해 프랑스와 벌어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1881년 11월, 李鴻章은 北京 주재 프랑스공사 프레드릭 알베르 부레(Frédéric Albert Bourée)와 天津에서 회담을 진행하였고, 양국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15] 하지만 1882년 4월, 앙리 리비에르(Henri Rivière)가 베트남 북부에서 흑기군의 활동과 반란이 야기한 혼란을 빌미로 하노이를 점령하였다.[16] 프랑스는 청나라 군대가 베트남에서 완전하게 철수하기를 요구하였고, 청나라는 베트남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였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이 지켜질 수 없었다.[17] 하노이 점령 이후, 프랑스는 일 년 가까이

---

13) 曾紀澤을 주전파로 분류하였던 기존 시각에 대한 반박은 다음을 참조. 關威,「李鴻章曾紀澤對中法戰爭的態度」,『歷史檔案』2010-02.

14) 1883~1885년 曾紀澤이 청나라와 프랑스와의 관계를 영국의 중재를 통해 외교적으로 풀어보려 했던 시도는 다음을 참조. 李峰,「曾紀澤與中法戰爭時期的英國調停」,『安徽史學』2004-3; 蔣躍波,「試評曾紀澤的近代外交思想」,『安徽史學』2004-3.

15) 당시 프레드릭 알베르 부레는 조선 주재 프랑스공사도 겸직하였다. 그와 李鴻章 사이의 합의는 베트남의 입장과 상관없이 이뤄졌다. 關威,「李鴻章與中法戰爭論析」,『安徽史學』2002-03. 李鴻章이 조정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德宗景皇帝實錄』卷156, 光緒8年 12月10日.[『明淸實錄』은 국사편찬위원회가 臺灣 中央硏究院 歷史語言硏究所와 양해각서를 맺어 홈페이지에 원문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음.]

16) 施渡橋, 앞의 논문; 關威,「李鴻章曾紀澤對中法戰爭的態度」,『歷史檔案』2010-02.

17) 청나라 조정에서는 프랑스에 줄기차게 베트남 송코이 강을 경계로 하는

군사행동을 중단하였다. 프랑스는 베트남에 충분히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였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을 압박하면서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계책을 사용하였다.

관료들은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벌이고 있는 침략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 때 청나라 조정의 핵심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

1861년 이후, 청나라 조정에서 형식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는 어린 황제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관료사회는 군기처의 영반(領班) 공친왕에 의해 관리되었고, 공친왕의 위에는 자희태후가 관료의 임면권을 움켜쥔 채 청나라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서 군림하였다.[18] 청나라 정책결정의 구조에서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과 관련된 소식은 군기처를 거쳐 자희태후에게 전달되었다. 즉, 군기처에서 진행된 논의들은 대체로 공친왕의 보고 형식을 통해 자희태후에게 전달되었고, 자희태후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1880년을 전후하여 사이공의 프랑스 총독은 공공연히 북베트남까지 차지하여 베트남을 온전히 자국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북베트남은 후에 조정에 반기를 든 세력을 비롯하여 청나라에서 흘러든 흑기군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후에 조정은 혼란을 수습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되자, 청나라 조정도 대책에 고심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국내외의 중요한 정책은 이전과 다른 구조 속에서 결정되었다.

1880년 7월부터 1881년 10월까지 청나라 관료사회는 사실상 공

지역을 자신들이 관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점은 다음을 참조. 『德宗景皇帝實錄』 卷156, 光緖9年 2月2·3·6·19日.

18) 광서시대 청나라 조정의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영옥, 「6. 황제 위의 권력」, 『견제받는 권력』,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pp.137-161.

친왕의 통제 아래 있었다.[19] 당시 자희태후는 병상에 누워있었고, 자안태후는 실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청나라 조정의 베트남정책은 대체로 크게 간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1881년 12월, 자희태후가 병상에서 회복된 뒤에 프랑스는 "송코이강을 거쳐 雲南에서 통상하려 한다. …… 그들이 침략하게 내버려 둔다면 雲南과 廣東 근처까지 모두 그 자들에게 압박을 당하는 곳이 될 것이고, 후환은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李鴻章, 左宗棠, 劉坤一, 劉長佑 등에게 베트남문제를 잘 협력하여 준비하라고 상유를 내렸다.[20] 태후의 상유는 청나라 조정이 베트남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신호였다.

청나라 조정의 베트남문제에 대해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뀔 무렵, 프랑스의 움직임을 강력하게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두 방향에서 나왔다. 하나는 청류[21]의 몇몇 인사들이 그 집단을 대표하여 드러낸 목소리였다. 다른 하나는 『申報』의 지면에 나타났고, 강경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였다.

1882년 2월, 청류에 속하는 인사들 가운데 張佩綸은 "雲南과 越南의 접경을 방어하는 일은 마땅히 양광총독이 책임지고 水師를 훈련시켜 뛰어난 군대로 만들 것"과 "劉永福 등은 모두 초빙하여 등용할 것" 등을 상주하였다.[22] 慈禧太后는 "아직 깊이 신뢰할 정

---

19) 자희태후의 병세와 치료과정은 다음을 참조. 程二奇, 「薛寶田與那拉氏庚辰疾患考」, 『新鄉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3-11; 徐彻, 『慈禧太后傳』, 遼瀋書社, 1994, pp.274-277.

20) 「諭軍機大臣等法人謀占越南北境並欲通商雲南事上諭」, 『德宗景皇帝實錄』 卷140, 光緒7年 10月15日.

21) 淸流 인사들을 가운데 張佩綸은 사회의 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발언하였다. 淸流의 구성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영옥, 앞의 논문, 2019.

22) 「張佩綸奏遵陳保小扞邊當謀自强之計一摺」, 『德宗景皇帝實錄』 卷143, 光緒8年 1月10日. 廣西巡撫 慶裕와 兩廣總督 張樹聲은 베트남과 가까운 곳에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였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고, 淸流는 張佩綸을 필두로 하여

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劉永福을 중용하지 않았다.[23] 같은 달, 『申報』는 베트남이 수백 년 동안 중국의 번속국이었고, 번속국의 이해득실은 곧 중국의 이해득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24] 4월에 앙리 리비에르가 하노이를 점령하자, 張佩綸은 두 차례 상주를 올렸다. 그는 베트남이 청나라에 입술과 같은 존재여서 베트남을 잃으면 雲南에서 廣東까지 곳곳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군사행동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5]

6월, 李鴻藻와 함께 청류를 이끌고 있던 張之洞도 군대를 보내 베트남을 구해야 한다고 상주하였다. 그는 베트남이 청나라의 번속국일 뿐만 아니라 변경의 병풍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하며, "현재 越南의 다툼에서는 전쟁만이 있을 뿐이다."고 여겼다.[26] 더 나아가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프랑스는 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청나라는 필요에 따라 군수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7월부터 『申報』는 「베트남을 살리는 10가지 책략」을, 총론을 포함하여 10회에 걸쳐서 실었다. 프랑스는 믿을 수 없고 베트남을 차지하려 하는데, 그 최종적인 목표는 베트남의 국경을 넘어 청나라를 넘보는 것이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27] 『申報』는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내정을 개혁하게 한다면, 베트남을 "영원히 남방의 방패막이"로 만드는 것이

집단으로 움직였다.

23) 「軍機處寄廣西巡撫慶裕上諭」, 『中法戰爭』 第5冊, 上海人民出版社, 2000, pp.96-97.

24) 「固藩三策·上篇」·「固藩三策·中篇」「固藩三策·下篇」, 『申報』 1883年2月17·22·25日.

25) 陳寶琛·張佩綸, 「存越固邊宜籌遠略摺」, 『中法戰爭』 第5冊, 上海人民出版社, 2000, pp.105-106.

26) 張之洞, 「越南日蹙宜籌兵遣師先發預防摺」, 『中法戰爭』 第5冊, 上海人民出版社, 2000, pp.113-114.

27) 「保護安南十策總論」, 『申報』 1882年7月15日.

가능하다고 여겼다.[28]

9월, 吏部主事 唐景崧은 軍機大臣 李鴻藻에게 베트남을 지원하여 프랑스의 세력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唐景崧은 李鴻藻의 집에서 의견서에 대해 격려를 받았고, 劉永福을 이용하여 프랑스를 막아야 한다고 상주하였다.[29] 廣西巡撫 劉長佑도 프랑스의 의도가 베트남을 완전히 차지하려는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상주하였다. 慈禧太后는 劉永福과 연락하여 회유하고, "외국인이 넘보는 것을 막는데 이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唐景崧을 雲南으로 보냈다.[30]

한편, 프랑스는 1882년 5월에 하노이를 점령한 다음, 베트남 조정을 압박하면서 군사적인 행동을 멈추고 있었다. 하지만 1883년 3월, 프랑스 원정군 사령관 아메데 쿠르베(Amédée Courbet)가 프랑스군을 지휘하기 시작하면서 군사적인 행동을 재개하였다.[31] 1883년 4월 14일, 唐景崧은 바오탕(保勝)에 도착하였고, 선떠이(山西)에서 劉永福을 만났다. 劉永福은 청나라에 협력해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프랑스가 세력을 확대하여 청나라의 영토를 넘보는 상황을 막는데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32] 4월과 5월, 『申報』에는 프랑스가 1881년의 李鴻章·부레의 합의(1881.11)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 군대를 증파하였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최종적인 목표가 베트남을 차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을 발판으로

---

28) 「保護安南十策第一」, 『申報』 1882年7月20日.

29) 唐景崧, 「請纓日記」, 『中法戰爭』 第2冊, 上海人民出版社, 2000, pp.42-43.

30) 「諭軍機大臣等藩司出省察看邊防並布置關外各國情形」, 『德宗景皇帝實錄』 卷150, 光緒8年 8月11日;

31)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과정에 대한 더 상세한 서술은 다음을 참조. 陳重金(Trần, Trọng Kim)著, 戴可來 譯, 『越南通史』, 商務印書館, 1992, pp.390-399.

32) 唐景崧, 「請纓日記」, 『中法戰爭』 第2冊, 上海人民出版社, 2000, p.98; 「唐景崧傳」, 『清史稿』 卷463, 列傳250, 中華書局, 1987, p.12734.

삼아서 중국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33]

1883년 5월부터 劉永福의 군대는 청나라 조정의 지지 아래 베트남 군대와 함께 프랑스 군대에 대한 군사행동을 시작하였다.[34] 그의 군대는 밀레가 지휘하는 프랑스 군대를 신속하게 공격하여 200명 이상을 살해하는 전과를 올렸다. 청나라의 도움을 받은 베트남의 공격이 매서워지자, 프랑스의 특사 트리코(Arthur Tricon)는 李鴻章과 上海에서 베트남 문제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였다. 6월, 『申報』에는 청나라는 프랑스와 전쟁을 피할 수 없고, 흑기군은 프랑스 군대를 막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글이 실렸다. 또한 "프랑스인은 유독 전쟁을 좋아하여 이웃나라의 상황을 묵살하고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니, 천하의 원망이 모이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공격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겠는가?"라며 반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35] 두 사람은 6월과 9월에 네 차례나 만났지만, 베트남에서 손을 떼라는 프랑스와 藩屬을 보호해야 한다는 청나라 사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36] 프랑스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청나라는 무력대결을 준비하였다. 10월, 慈禧太后는 劉永福의 군대를 "劉軍"이나 "劉團"으로 불렀고, "은 10만량을 마련하여 신속히 劉永福 軍營에 보내서 긴급한 수요에 충당하게 하였다."[37]

---

33) 「論法人召回公使事」, 『申報』 1883年4月9日; 「論中法大局」, 『申報』 1883年5月16日.

34) 「劉永福傳」, 『淸史稿』 卷463, 列傳250, 中華書局, 1987, p.12736; 吳國强, 「劉永福傳略」, 『廣西史地』 1995-11.

35) 「援越末議」, 『申報』 1883年6月10日; 「說戰」, 『申報』 1883年6月25日.

36) 關威, 「中法戰爭前李鴻章與寶海, 脫利古談判述論」, 『韓山師範學院學報』 2005-10.

37) 「諭軍機處等粵軍照常扼守並劉軍需饟情形各摺片」, 『德宗景皇帝實錄』 卷170, 光緒9年9月22日.

2) 베트남 북부의 군사충돌

1883년 10월 이후, 청나라와 프랑스는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결국 양국의 전면적인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2월 14일, 쿠르베의 후임 밀레Charles-Théodore Millot프랑스군을 이끌고 선떠이를 점령하였다.[38] 劉永福 군대가 베트남을 도와서 저항하였지만 프랑스군을 이겨낼 수 없었다. 12월 23일, 『申報』는 선떠이의 함락 소식을 베트남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파도가 밀려드는 것 같은 기세"의 프랑스군을 "黑旗軍과 베트남병사들은 막아낼 수 없었다."고 보도하였다.[39]



해가 바뀌면서 베트남 현지의 상황은 청나라에 더 많이 알려졌다. 『申報』는 1884년 1월에 63건의 기사를 쏟아냈다. 주요한 논조는 "중국과 프랑스의 전쟁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었다.[40] 이제 청나라는 프랑스와 전면전

38) 1883년 12월 11일, 프랑스군은 하노이를 떠나 선떠이로 출발하였다. 14일, 6,000명의 병사(黑旗軍 3,000명, 雲南軍 1,100명, 廣西軍 400명, 베트남 군 2,000명)가 프랑스군에 맞서 혈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배하였다. 선떠이전투의 자세한 경과는 다음을 참조. 黃振南, 「中法山西之役始末」, 『廣西社會科學』 1997-04; 「山西之役起因與敗因初探」, 『軍事歷史研究』 1999-11.

39) 「桑台失守電音」, 『申報』 1883年12月23日. 『申報』는 12월 20일자 「河內近報」에서 "劉永福이 계책으로 프랑스를 격파할 수 있지만, 프랑스는 계책으로 劉永福에게 이길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40) 「論法人劫地索賠之謀」, 『申報』 1884年1月5日.

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주전론과 함께 『申報』는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군대를 증강하고 있다는 소식도 보도하여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41] 청나라의 전의를 자극하는 기사에는 선떠이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천인공노할 야만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보도되었고, 프랑스는 망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42]

한편, 패전 소식은 청나라 조정에도 보고되었다.[43] 그 뒤에 잇달아 베트남으로부터 들려온 소식들을 통해, 자희태후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1월 14일, 廣東에 파견된 兵部尙書 彭玉麟과 兩廣總督 張樹聲에게 변방에서 "해안과 육상의 군대를 엄격하게 지휘하여 일이 더 커지는" 사태를 막으라고 지시하였다.[44] 2월 15일, 자희태후는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군사행동을 묵인할 수 없었지만, 전쟁의 불길이 국경을 넘어 청나라에 미치는 것을 우려하려 방어를 단단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45] 劉永福의 군대를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행동을 막으려했던 상유(1883.10)와 비교했을 때, 다소 수동적인 태도로 바뀐 것이었다.

3월 9일, 청류를 이끌고 있던 張之洞은 廣東에서도 프랑스를 막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상주하였다. 그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되고, 청나라는 베트남 현지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

41) 「論法人屢次增兵信息」·「招募客兵」·「添兵電報」, 『申報』 1884年1月12·22·25日.

42) 「論法軍殘暴」·「論法人殘忍」, 『申報』 1884年1月10·20日.

43) 「諭張樹聲迅速電聞越南山西情形」, 『德宗景皇帝實錄』 卷174, 光緖9年11月25日; 「著岑毓英體察山西情形迅速覆奏」, 『德宗景皇帝實錄』 卷174, 光緖9年11月28日.

44) 「著嚴飭水陸各營無得別滋事端治生枝節」, 『德宗景皇帝實錄』 卷175, 光緖9年12月4日. 자희태후는 1884년 1월14·20·23일(光緖9年 12月17·23·26日)에 변방의 군대에 방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45) 「著督飭各營迅速前進力保北營」, 『德宗景皇帝實錄』 卷177, 光緖10年1月22日.

劉永福과 베트남의 군대를 잘 활용하여 잘 준비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46] 『申報』의 경우 2월에 38건의 베트남 관련 기사를 보도하여 1월보다 수량은 줄어들었지만, 프랑스에 맞서 항전해야 한다는 논조에 큰 변화가 없었다.[47]

1884년 3월 12일과 19일, 프랑스군은 박닌(北寧)과 타이응우엔(太原)을 잇달아 점령하였다. 청나라 군대는 사실상 베트남 안에서 세력을 잃었다. 3월 16일, 박닌의 함락 소식이 李鴻章을 통해 보고되었다.[48] 타이응우엔까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조정에 보고된 뒤, 3월 26일에 廣西巡撫 徐延旭과 雲南巡撫 唐炯이 파면되어 北京으로 소환되었고, 潘鼎新과 張凱嵩이 각각 廣西巡撫와 雲南巡撫로 발탁되었다.[49] 潘鼎新은 같은 安徽 출신 李鴻章의 지원으로 관료사회에서 경력을 쌓았고, 1876년 雲南巡撫로 재직할 때 雲貴總督 劉長佑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는 다른 관직에 임명되지 못하여 1881년에 낙향하였는데, 1883년 6월에 李鴻章의 도움을 받아서 湖南巡撫로 복귀하였고, 1884년 3월에

---

46) 「廣東防務依張之洞條陳辦理上諭」, 『德宗景皇帝實錄』 卷178, 光緒10年2月12日. 張之洞은 이미 1월에 프랑스와의 전쟁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들을 막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상주하였다. 이점은 다음을 참조. 「法釁已成敬陳戰守事宜摺」, 『德宗景皇帝實錄』 卷175, 光緒9年12月13日.

47) 1월과 같은 논조를 살필 수 있는 주요 기사는 「法國增兵」·「西人傳言」·「再論中法和戰大勢」(『申報』 1884년 2월 19·23·27일)를 참조. 전쟁과 관련된 기사는 3월 39건, 4월 43건이던 것이, 5월에 들어서 협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20건으로 줄었고, 6월에도 20건이었다. 하지만 다시 전운이 감돌면서 7월에는 72건, 8월에는 105건으로 크게 늘었다.

48) 「著卽激勵各營及劉永福一軍擇要扼守捍衛邊疆」, 『德宗景皇帝實錄』 卷178, 光緒10年2月19日;

49) 청나라 조정에서 타이응우엔의 함락 소식을 알게 된 정확한 날짜는 보이지 않고, 潘鼎新을 廣西巡撫로 전보하는 상유에서 이미 "선떠이, 박닌, 타이응우엔이 차례로 함락된" 사실이 언급되었다. 「著徐延旭唐炯革職拿問派員交刑部治罪」·「諭令潘鼎新馳赴廣西務與岑毓英和衷商榷速籌戰守之策」, 『德宗景皇帝實錄』 卷178, 光緒10年2月29日.

는 廣西巡撫로 임명되었다. 당시 나이는 56세였다.[50] 張凱嵩은 태평천국의 진압에 공을 세워 廣西巡撫를 거쳐 1867년 雲貴總督으로 발탁되었다. 그는 현지 관리들의 알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이유로 여러 차례 거절하여 결국 파직되었다. 1880년 內閣侍讀學士로 복직하였고, 1881년부터 四川에서 按察使, 布政使를 거쳐 貴州巡撫에 재직하였는데, 1884년에 雲南巡撫에 발탁되었고 당시 64세의 고령이었다.[51]

徐延旭과 唐炯의 파면, 潘鼎新과 張凱嵩의 발탁에는 두 가지 의문이 있다. 먼저, 두 사람의 파면과 北京 소환 결정이 성급하지 않았는가하는 점이다. 徐延旭은 1883년 10월부터 廣西巡撫, 唐炯은 1883년 6월부터 雲南巡撫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두 사람에게 박닌과 타이응우엔 함락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왕조시대 관료사회에서 당연한 절차였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52]

그런데 1881년 12월부터 慈禧太后가 다시 정무를 주관하기 시작하였고, 베트남에서 프랑스군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었다. 慈禧太后는 변방이 위험에 빠지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세력 확대를 막으려 하였고, 과거 반란집단으로 여겼던 劉永福에게 군비를 지원하여 군사력을 높이고 프랑스에 대항하였다. 그렇다면 프랑스군이 국경을 넘어 청나라의 변방을 넘볼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청나라 조정은 증원 병력을 보내고

---

50) 潘鼎新의 약력, 淮軍 내의 지위, 李鴻章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趙爾巽 主編, 「潘鼎新傳」, 『淸史稿』, 中華書局, 1987, p.12086; 紀寧, 「關于潘鼎新軍政生涯評價」, 『重慶科技學院學報』 2012-14.

51) 黃明, 「封疆大吏張凱嵩」, 『廣西文史』 2012-2.

52) 청나라에서 건륭시대 말기부터 관원이 되기 더욱 어려워졌다. 자리는 부족하고 관리의 복무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관리들 사이나 관리와 관리후보자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겼다. 그 결과 관리들이 罰俸, 降級, 革職 등의 處分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관리에 대한 處分은 다음을 참조. 許穎, 『淸代文官行政處分程序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pp. 212-223.

두 사람에게 공을 세워 속죄할[戴罪立功]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았다. 더구나 潘鼎新은 한 달이 넘게 지나서야 현지에 도착하였다. 결국 청나라 군대는 한시가 급한데 지휘관도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에서 더 이상 프랑스에 대항하여 제대로 군사행동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潘鼎新과 張凱嵩의 발탁이 적절했는가하는 점이다. 潘鼎新은 재임 1년여 만에 雲南巡撫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다른 자리를 찾다가 1881년 낙향하였고 사실상 관직생활을 마감하였다. 그가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발탁된 것은 安徽 출신으로 李鴻章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53] 당시 李鴻章은 베트남을 둘러싼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무력충돌을 피하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李鴻章의 사람이었던 潘鼎新이 발탁된 것은 현지에서 베트남과 전투를 벌이고 있던 장병들에게 적극적인 저항보다는 소극적인 방어의 태도를 갖게 만들 수 있었다.

張凱嵩은 태평군의 진압에 기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날의 일이었다. 1884년 4월의 雲南巡撫는 실제로 프랑스에 군대로 맞서거나 방어하는 일을 맡아만 하였다. 張凱嵩이 왕조에 반기를 든 태평군의 무리를 진압하기 위하여 전쟁터를 누볐던 것은 이미 20년 가까이 지난 일었고, 더구나 그때는 여전히 몸에 힘을 느낄 때였다. 하지만 그가 雲南巡撫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이미 기력이 예전만 같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

李鴻章의 사람이었던 潘鼎新과 고령이었던 張凱嵩을 발탁한 것은 청나라 군대가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프랑스군에 밀리고 있었

53) 潘鼎新은 捻軍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공을 세워 李鴻章의 신임을 받았다. 李鴻章은 1876년과 1884년 두 번 潘鼎新이 관직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발탁하였다. 淮軍의 인맥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陸方・李之勃, 「晚清淮系集团研究-淮軍、淮將和李鴻章』,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11; 張勤, 「試從湘淮關係看淮軍軍系形成的軌迹」, 『學術界』 1995-4.

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문스럽다. 두 사람은 현지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던 지휘관이나 병사들은 전투에 적극적이기 보다 소극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진 것일까?

역사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 의문을 푸는 방법은 사건이 전개되는 전체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의문은 徐延旭·唐炯의 파면과 潘鼎新·張凱高의 발탁이 발표된 이후 청나라 조정에서 벌어진 일의 상황을 통해 풀릴 수 있다.

3. 권력갈등과 갑신역추

1) 권력층내부의 갈등

1884년 3월 26일부터 청나라 조정에서 벌어진 일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이전 조정 내부의 권력관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61년 이후 청나라에서 총리아문은 대외정책을 주관하였고, 총리아문의 총리대신 가운데 핵심인물들은 다시 군기처에서 군기대신을 겸직하였다. 따라서 당시 대외정책은 恭親王을 중심으로 하여 입안되었다. 다만, 대외정책이 최종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慈安·慈禧太后의 재가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1870년대까지 재가를 거치는 과정이 형식적이었고, 대외정책의 입안부터 시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恭親王의 군기처가 책임지고 있었다.[54]

54) 어떤 경우든 동치제와 그 뒤를 이은 광서제는 대외정책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청나라 말기 왕조정치제제는 황제중심이 아니었다. 1860년대 이후 정통성을 가진 황제권력의 부재는 권력에 대한 구심력을 약화시켰고, 취약한 정통성은 실제 권력에 대한 견제

1870년대까지 청나라의 대외정책은 서북지역에서 左宗棠의 활동을 제외하면 대체로 충돌을 피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다.[55] 그 이유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辛酉政變으로 대외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던 청나라 권력집단의 구성이 바뀌었고, 太平天國을 진압한 뒤에 양무운동을 추진하면서 열강과 협조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56] 1861년 이후 양무운동을 진행하면서 열강의 협조가 필요하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돌을 피하는 대외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기조는 동치시대 내내 유지되었다.[57]

대외관계에서 유화정책의 기조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만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辛酉政變 이후 몸을 낮추고 있던 보수파는 조정의 대외정책을 굴욕적이라고 여겼다. 1870년 天津敎

를 용인하지 않는 편협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55) 左宗棠은 捻軍과 回民 봉기, 新疆 내전 등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청나라는 新疆 야쿱 벡의 문제가 러시아, 더 나아가 영국·프랑스 등 열강과도 얽힐 수 있었는데, 무력으로 해결하였다. 左宗棠이 중국 서북지역에서 행한 활동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을 참조. 劉增合, 「左宗棠西征籌餉與淸廷戰時財政調控」, 『近代史硏究』 2017-02; 梁東梁, 「左宗棠與晩淸邊疆危機」, 『東北史地』 2014-02.

56) 1860-70년대 청나라의 외교는 양무운동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총리아문대신을 겸직하던 군기처가 주도하고 있었지만, 督撫의 영향력이 강하였고 海關道가 열강과의 교섭에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陳潮, 「19世紀後期晩淸外交體制的重要特點」, 『學術月刊』 2002-07; 郭衛東, 「論晩淸時代的地方外交」, 『廣東社會科學』 2017-04. 자강을 위해 외국과의 협조적 관계를 중시한 恭親王의 외교는 다음을 참조. 楊發祥, 「奕訢與晩淸外交近代化」, 『首都師範大學學報』 2002-05.

57) 咸豐시대까지도 청나라는 천조의 위신을 지키려는 생각이 강하였기 때문에 南京條約 등 열강과 맺은 조약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北京條約 이후 조약의 성실한 이행을 중요하게 여겼고, 마가리사건을 거치면서 督撫들도 조약을 이행을 통해 열강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 하였다. 이점은 다음을 참조. 李育民, 「論淸政府的信守條約方針及其變化」, 『近代史硏究』 2004-02; 高路, 「論淸政府對外方略的改變」, 『華中師範大學學報』 1998-05.

案의 처리를 놓고 보수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당시 성난 백성들이 프랑스영사·선교사·수녀 등을 때려죽이고 영사관과 교회를 불태웠다.[58] 프랑스·미국·영국 등이 總理衙門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恭親王은 直隸總督 曾國藩을 통해 관련자와 현지 관리 처벌, 배상금 지불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매듭짓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59] 협상 결과는 보수파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醇郡王(1872년 醇親王) 奕譞과 軍機大臣 李鴻藻는 백성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처벌하는 굴욕적인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60]

사건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御前會議에서 京師 士大夫의 淸議를 대표하던 倭仁도 현지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慈禧·慈安太后는 "야만인들이 우리의 원수"이니 "그것들을 제거할 계책이 있다면, 우리 두 사람은 죽어도 통쾌하겠지만, 황제께서 어리시니 일을 마땅히 장기적으로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61] 회의에서 軍機大臣 恭親王, 寶鑑 등은 曾國藩이 이끌어낸 협상에 동의하였고, 醇郡王 奕譞, 軍機大臣 李鴻藻, 戶部尙書 董恂 등은 반대하였다. 결국 曾國藩이 올린 상주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열강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다.

---

58) 天津教案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董叢林, 「"迷拐"、"折割"傳聞與天津教案」, 『近代史研究』 2003-03.

59) 周琦、陳素娟, 「晚淸中國外交困局的回顧與反思-以天津教案爲例」, 『湘潭大學學報』 2013-03; 孫春芝, 「也論曾國藩辦理天津教案"內疚神明外慚淸議"」, 『近代史研究』 1998-09; 趙春晨, 「晚淸洋務派與天津教案」, 『歷史研究』 1988-05.

60) 李宗侗·劉鳳翰, 『李鴻藻先生年譜』, 臺灣: 商務印書館, 1969, pp.172~174.

61) 1870년 7월23, 慈安·慈禧太后, 諸王, 軍機大臣, 御前大臣, 總理衙門諸大臣 등이 참여한 御前會議가 열렸고, 天津教案의 처리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翁同龢, 『翁同龢日記』 第二冊, 北京:中華書局, 1989, pp.784~785.

청나라 조정 내부에서는 교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는데, 1874년에 臺灣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외교를 주관하던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을 더 중시하였다. 張佩綸, 陳寶琛 등은 일본에 강경한 대처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시 청나라는 군사력을 동원하고 일본과 충돌도 불사할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다. 결국 琉球의 영유권을 일본에게 인정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62]

1875년 2월, 영국대사관의 통역사 마가리A. R. Margary가 雲南에서 현지인들과 충돌하였고 사망하였다.[63] 사건이 발생한 뒤, 청나라 조정은 영국과 烟臺條約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지불하였고, 1876년 겨울 郭崇燾는 영국에 사죄 사절로 파견되었다. 보수파들은 郭崇燾를 매국노, 湖南의 수치, 간신 등으로 비난하였고, 李鴻藻는 서양인에 대한 반감이 강했던 劉錫鴻을 副使로 임명하여 郭崇燾를 감시하게 하였다.[64] 郭崇燾는 『使西紀程』을 저술하여 유럽 문화의 장점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보수파로부터 탄핵을 당하였고, 1879년 본국으로 소환된 뒤에 더 이상 관직을 얻지 못하였다.

1870년대 말 보수파들은 伊犁의 처리를 놓고 恭親王의 주도하고 있던 대외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1878년 左宗棠은 코칸드의 야쿱 벡이 1870년부터 점령하고 있던 新疆 지역을 되찾았다. 당시 러시아는 치안을 이유로 군대를 보내서 伊犁를 차지하고 있

62) 청조의 대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정책, 대만사건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을 참조. 손준식, 「청조의 대만 인식과 정책」, 『근대중국연구』 제1집, 2000; 문명기, 「臺灣事件(1874) 이후 淸朝의 臺灣經營과 建省方案의 형성」, 『역사학보』 194, 2007.

63) 方英, 「合作中的分岐-馬嘉理案交涉再研究」, 『史學集刊』 2014-07; 屈春海・倪曉一, 「馬嘉理被殺案件的審理」, 『歷史檔案』 2007-11.

64) 郭崇燾의 出使에 얽힌 보수파의 공격은 다음을 참조. 汪榮祖, 「高瞻遠矚者的寂寞:郭崇燾與晚淸政局」, 『史林』 2017-02; 王瑞・張立勝, 「試論晚淸保守派的外交主張」, 『哈爾濱學院學報』 2006-07; 李志茗, 「論郭崇燾的外交理論及實踐」, 『史林』 2000-03.

었다. 1879년 청나라 伊犁를 되찾기 위하여 崇厚를 러시아에 파견하였다. 崇厚는 러시아와 리바디아조약을 체결하였다.[65] 조약은 청나라가 伊犁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넘겨주고 500만 루블의 배상금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李鴻章, 劉坤一 등은 러시아와 분쟁이 생기면 자칫 열강이 개입할 수도 있기 조약에 따라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여겼다.[66] 반면, 張之洞, 李鴻藻 등은 잘못 체결된 조약을 바로잡기 위하여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반발하였다. 결국 청나라 조정은 曾紀澤을 러시아로 파견하여 교섭을 진행하였고, 배상금을 900만 루블로 높이는 대신에 伊犁 지역을 영토로 보전할 수 있었다.

1860년대 이래 보수파는 청나라의 외교를 주도하고 있던 總理衙門과 軍機處, 南北洋大臣에 대해 줄곧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教案, 臺灣사건, 伊犁사건 등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외교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서양 야만인에게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여겼다. 보수파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개인이 아니라 淸流라는 집단을 형성하였고, 내정과 외교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67] 1880년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이 노골화되자, 淸流의 대표 인물이었던 張之洞, 李鴻藻, 張佩綸, 陳寶琛 등은 모두 베트남의 위기는 바로

65) 新疆 지역을 둘러싼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 야쿱 벡의 등장, 리바디아조약의 체결, 그에 대한 반발 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李建平, 「〈里瓦幾亞條約〉對淸政府外交的考量」, 『黑龍江史地』 第336期, 2014; 임마누엘 C.Y. 쉬, 조윤수・서정희 옮김, 『근현대중국사』, 까치, 2013, pp. 393~401.

66) 당시 李鴻章은 直隸總督兼北洋(通商)大臣, 劉坤一은 兩江總督兼南洋(通商)大臣으로 북쪽과 남쪽 지역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였고, 무력충돌을 피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南・北洋大臣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趙宏林, 「晩淸地方外交硏究」, 湖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pp. 48~60; 劉國華, 「南北洋大臣參與晩淸外交的主要特徵」, 『成都大學學報』 2010-05.

67) 淸流의 구성과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영옥, 앞의 논문, pp.148-156.

청나라 변경의 위기라며 청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8] 그들은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벌이고 있는 전횡은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베트남을 도와 프랑스를 응징해야만 한다고 여겼다.

청나라 조정의 대외정책 방향도 1882년을 전후하여 변화가 있었다. 1881년 12월, 앞서 서술하였듯이, 병상에서 일어난 자희태후가 적극적으로 베트남문제에 간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때부터 청나라 조정의 베트남정책은 타협론에서 강경론으로 선회하였다. 張佩綸은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고 劉永福의 군대도 활용하여 베트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82년 11월에는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軍機處의 구성이 바뀌었다. 翁同龢와 潘祖蔭이 새롭게 軍機大臣에 임명되었다. 두 사람은 軍機處에서 非恭親王세력이었던 李鴻藻, 景廉과 사적인 친분을 유지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69] 翁同龢는 翁心存의 아들이다. 翁心存은 함풍시대 軍機大臣으로 대외정책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졌고, 倭仁・李鴻藻와 함께 同治帝의 사부를 역임하였다.[70] 潘祖蔭은 건륭시대 이래 장원급제를 포함하여 9명의 進士를 배출한 江南 명문집안 출신으로 李鴻章, 曾國藩 등과도 교분이 두터웠다.[71] 翁同龢가 軍機處에 入直하던 날, 恭親王세력이었던 王文韶가 사직하였다. 그 다

68) 淸流의 베트남정책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范啓龍, 「"淸流派"陳寶琛與中法戰爭」, 『福建師範大學學報』 1995-07; 李侃・李占領, 「淸流派與中法戰爭」, 『社會科學戰線』 1996-02; 趙琳, 「張佩綸與中法戰爭」, 『學術月刊』 1997-02.

69) 潘佳, 『潘祖蔭研究』, 復旦大學博士論文, 2013, pp.220~221.

70) 「翁心存」, 『淸史列傳』 卷45, 中華書局, 1987, pp.3587~3596. 倭人이 양무에 비판적이었고, 李鴻藻가 淸流를 이끌고 있었다. 翁同龢가 선대의 인연으로 그들과 친밀하였고, 훗날 광서제가 戊戌變法을 추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다.

71) 吳仁安, 「明淸時期中央朝廷與地方關係中的江南著姓望族」, 『江南大學學報』 2013-07.

음날에는 潘祖蔭이 入直하였다. 그 결과, 20년 이상 유지되었던 軍機處의 구성은 바뀌었다. 恭親王세력과 非恭親王세력이 이틀 만에 3:2에서 3:3을 거쳐 2:4로 역전되었다. 1883년 1월, 潘祖蔭이 服喪으로 면직되었지만, 여전히 두 세력의 비율은 2:3으로 非恭親王세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1880년대 권력구조의 변화는 왜 청나라가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세력 확장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청나라가 베트남에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84년 3월 26일에 徐延旭·唐炯을 파면하고 潘鼎新·張凱高을 발탁하는 상유가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2) 갑신역추와 권력독점

표면적으로 파면과 발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청나라가 베트남에서 손을 뗀 것도 아니었고, 조정에서 더 유능한 인물로 교체했다고 말한다면 반박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3월 26일 이후에 조정에서 진행된 논의를 통해 3월 26일의 상유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4월 3일, 國子監祭主 盛昱은 베트남에서 프랑스 군대에 패배한 이유가 張佩綸과 軍機大臣 등이 徐延旭과 唐炯이라는 적합하지 않은 자들을 천거하였기 때문이라며, 張佩綸과 軍機大臣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상주하였다.[72] 그는 "귀한 측근을 탄핵하는 것은 만 번 죽어도 마땅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없이 황송할 뿐입니다. 황태후와 황상께서 살펴보시기를 엎드려 간청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73] 盛昱은 관료들의 잘못을 가차 없이 공격하는

72) 盛昱은 만주인으로 1876년 進士가 된 뒤에 翰林院編修, 國子監祭酒, 日講起居注官 등을 역임하였다. 趙爾巽 等, 「盛昱傳」, 『淸史稿』 卷444, 列傳231, 中華書局, 1987, p.12454.

성향의 인물이었고, 지나치게 바른 말을 해서 관리들이 기피하였다. 결국 관료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향하였다가, 1884년부터 國子監祭主를 맡고 있었다. 그가 타인의 잘못에 가혹한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면, 그의 상주를 일정하게 걸러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자희태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軍機大臣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태후는 "변경의 방어가 불안한데 현지 관료들은 복지부동이다. 나라 재정은 비어가고 해안방어는 내실이 없으니 조상님을 대할 수가 없다."고 질책하였다. 翁同龢는 추상같은 질책에 식은땀이 날 정도라고 기록하였다.[74]

4월 5일, 자희태후는 醇親王 奕譞과 盛昱의 탄핵 상주문에 대해 논의하였다.[75] 醇親王은 道光帝의 일곱째 아들로 恭親王과 함께 辛酉政變 때 慈禧太后의 편에 섰다. 그 뒤, 恭親王이 군기처와 총리아문에서 청나라의 내정과 외교를 주도하였고, 醇親王은 1870년 天津教案이 발생했을 때부터 恭親王이 주도하고 있던 외교정책에 분명하고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던 인물이다. 1874년, 醇親王은 자신의 아들이 황제가 되자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고 친왕의 지위까지 폐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76] 그는 실제 황제의 아버지로서 자신을 낮춤으로써 친왕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慈禧太后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황제가 된 지 딱 10년째 되는 해에 군기대신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慈禧太后와 상의하였다.

4월 8일, 慈禧太后는 "군기처는 실로 국내외의 用人과 行政에서

---

73) 盛昱이 올린 상주문은 『淸實錄』과 『東華錄』에 보이지 않는다. 그 내용은 다음을 참조. 李宗侗 · 劉鳳翰, 『李鴻藻先生年譜』, 臺灣: 商務印書館, 1969, pp.406~408. 李宗侗은 李鴻藻의 손자이다.

74) 翁同龢, 앞의 책, p.1817.

75) 江鳴, 「從"張藏信札"看"甲申易樞"」, 『文匯報』, 2017.02.17; 翁同龢, 앞의 책, p.1817; 李宗侗 · 劉鳳翰, 앞의 책, p.405.

76) 趙爾巽 等, 「盛昱傳」, 『淸史稿』 卷221, 列傳8, 中華書局, 1987, p.9111.

중심이다. 恭親王 奕訢 등은 처음에 늘 조심하면서 보좌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복지부동하였다."고 질책하였고, 언관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 간의 공적을 고려하여 참아왔는데 조정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리고 恭親王과 寶鑑 뿐만 아니라 李鴻藻와 景廉까지 軍機大臣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였고, 翁同龢는 軍機處에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皇子의 거처 毓慶宮으로 좌천시켰다. 禮親王 世鐸, 戶部尙書 額勒和布와 刑部尙書 張之萬, 工部侍郎 孫毓汶, 戶部尙書 閻敬銘 등이 새롭게 군기처의 구성원이 되었다.[77] 4월 9일, 盛昱은 恭親王과 李鴻藻 등에게 잘못을 씻을 수

〈표〉 1884년 軍機大臣 임면 및 겸직 상황

	면직	임명	비고
軍機處	恭親王 總署大臣	禮親王	左宗棠은 1884년 9월, 閻敬銘은 1886년 11월에 罷直, 그 뒤에 1893년까지 군기대신은 5인 체제가 유지됨.
	寶鑑 武英殿大學士, 總署大臣	額勒和布 武英殿大學士	
	李鴻藻 吏部尙書, 總署大臣	張之萬 刑部尙書	
	景廉 兵部尙書, 總署大臣	許庚身 兵部尙書, 總署大臣	
	翁同龢 工部尙書	孫毓汶 工部尙書, 總署大臣	
		閻敬銘 戶部尙書, 總署大臣	
		左宗棠 東閣大學士	

77) 「欽奉懿旨著恭親王寶鑑李鴻藻景廉等均去一切差使」, 『德宗景皇帝實錄』 卷179, 光緒10年 3月13日.

있도록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慈禧太后는 軍機處에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 醇親王과 함께 상의하도록 하였다. 4월 12일, 慶郡王 奕劻에게 總理衙門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는 상유가 내려졌다.[78]

4월 8일에 軍機處 구성원의 교체를 단행할 때와 9일에 醇親王에게 실질적인 군기처 지휘권을 줄 때는 懿旨를 내렸지만, 12일에 總理衙門의 사무와 관련된 지시는 황제 명의의 상유가 내려졌다. 軍機處와 總理衙門은 각각 親王과 郡王이 이끌게 되었다. 13일, 외교문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軍機處와 總理衙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張佩綸의 건의하였다. 하지만 總理衙門에 軍機處에서 연배가 낮은 許庚身·孫毓汶만을 겸직하게 함으로써 건의의 일부만 수용되었고, 總理衙門의 위상이 낮아졌다.[79] 같은 날, 『申報』는 北京에서 8·9·10일에 군기처와 6부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면 보도하겠다는 기사를 1면에 실었다.[80] 15일, 『申報』에는 8일과 9일의 懿旨를 1면에 실었고, 그에 대한 논평은 없었다.[81] 18일, 盛昱은 순친왕이 군기대신이 되어 군기처를 이끌어야 한다고 상주하였는데, 순친왕이 고사하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82]

4월 18일, 李鴻章은 總理衙門에 電報를 보내 두 가지 사실을 보고하였다.[83] 첫째, 4월 15일에 프랑스군이 홍호와興化를 점령하였

78) 朱壽朋 編, 『光緒朝東華錄』, 中華書局, 1958, pp.1677~1678. 盛昱의 주접은 다음을 참조. 李宗侗·劉鳳翰, 앞의 책, p.413.

79) 張佩綸, 『澗于集』, 臺北:文海出版社, 1967, 483~484; 朱壽朋 編, 『光緒朝東華錄』, 中華書局, 1958, pp.1685.

80) 「京師要電」, 『申報』 1884年4月13日.

81) 「上諭恭錄」, 『申報』 1884年4月15日.

82) 朱壽朋 編, 『光緒朝東華錄』, 中華書局, 1958, pp.1679~1682.

83) 楊秀雲, 「赫德與晚淸中外約章硏究」, 湖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 pp.70~71; 曹必宏, 「赫德與中法談判(1884~1885)」, 『歷史檔案』 2005-03.

다. 둘째, 4월 17일에 총세무사 로버트 하트(Robert Hart)와 粵海關세무사 데트링(Detring Gustav von, 德璀琳)이 프랑스 수군제독 푸니에르(Francois Ernest Fournier, 福祿諾)의 서신을 들고 방문하였다. 푸니에르는 청군철병, 베트남문제 불간섭, 雲南지역 통상, 프랑스 군비배상금 협의 등을 제안하였다. 4월 20일, 이홍장에게 프랑스와 협상을 진행하라는 상유가 내려졌다.[84] 상유는 협상을 지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긴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청나라는 통상 이래 프랑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프랑스와 베트남이 전쟁을 하게 되자, 당연히 베트남은 우리 왕조의 오랜 번속이라서 보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베트남과의 접경 지역에 토비가 날뛰고 더욱이 중국 변강으로 잠입하였다. 그래서 베트남 북부에 군사들 주둔시켜 토비를 막으려 하였고, 한편으로 프랑스 사신에게 조회를 보내서 양국 사이의 오해를 방지하려 하였다. 베트남은 분위기에 휩쓸렸고, 그 나라 敎民들은 우리의 앞길을 막았다. 이것은 모두 베트남대신들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여 생긴 일이다."

4월 30일, 李鴻章이 프랑스와 화의를 체결할 것과 베트남에서 청나라 군대를 철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慈禧太后는 軍機大臣, 總署大臣, 大學士, 六部상서, 九卿, 翰詹科道 등이 모인 御前會議를 열어 의견을 제출하게 하였다. 5월 4일, 慈禧太后는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李鴻章에게 베트남의 청나라 속국 명기, 互市불허, 배상불허, 劉永福 보호 등을 조건으로 협상하라고 지시하였다. 5월 6일, 푸니에르가 텐진에 도착하여 협상이 시작되었다. 5월 8일, 御前會議가 열려 李鴻章에게 협상이 일임되었으며, 5월 11일에 「中法會議簡明條款」(=「李福協定」, 「天津協定」)이 체결되었다.[85] 李鴻

84) 「著李鴻章籌辦交涉事件, 通盤籌畫酌定辦理之法事上諭」, 『德宗景皇帝實錄』 卷180, 光緒10年3月25日.

85) 날짜별로 李鴻章과 푸르니에가 진행한 회담 과정을 파악하고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을 참조. 張開沅 主編, 『淸通鑒』, 岳麓書社,

章과 푸니에르는 협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기로 하였다. 청나라는 베트남과 프랑스가 체결한 모든 조약을 인정하고, 베트남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하며, 접경지역에서 프랑스와 베트남 화물의 교역을 허가한다. 그 대신에 프랑스는 청나라에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고, 베트남과의 조약에서 청나라의 존엄을 해치는 내용을 넣지 않는다.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 협상의 분위기가 조성되자, 『申報』에는 "과거 중국은 외국과 의 화친을 수치스럽게 여겼지만, 현재 중국은 오히려 외국과의 화친을 영광스럽게 여긴다."[86]거나 "중국이 지금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가?"[87]며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글이 실렸다.

협정은 3개월 뒤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3개월 뒤에 정식으로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는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하였고, 프랑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6월 23일, 박레(北黎)에서 두 나라 군대 사이에 무장충돌이 발생하였고, 프랑스 사병들이 사망하게 되었다.[88] 7월 12일, 프랑스는 청나라에 협정을 체결하려면 군대를 즉각 철수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 양국은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박레에서 일어난 무장충돌 소식이 알려지자, 『申報』에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글들이 많아졌다.[89] 8월 23일 쿠르

2000, pp.509-513. 恭親王을 이어 總理衙門을 이끌던 奕劻은 이홍장에 의지하였고, 협정이 체결되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馬平安, 「奕劻與中法戰爭」, 『史學月刊』 2019-07.

86) 「論中法皆有愿和之意」, 『申報』 1884年5月6日.

87) 「戰和利害說」, 『申報』 1884年5月6日.

88) 박레에서 벌어진 청나라와 프랑스의 충돌과정은 다음을 참조. 張振鵾, 「福祿諾節略與中法戰爭兩個階段的轉變-從《泰晤士報》的一篇報道說起」, 『近代史研究』 2017-07.

89) 박레 충돌의 상황이 자세히 알려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관련 기사 14 건 가운데 11건이 전쟁불가피론을 주장한 것이었다. 14건의 기사

베는 군함 12척을 이끌고 푸저우를 침략하였다. 프랑스 군대가 청나라 영토를 직접 공격하면서 베트남이 청나라를 대신해서 싸우던 대리전은 막을 내렸고, 청나라와 프랑스 두 나라 사이에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청나라는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고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 낙인을 찍었던 劉永福을 포섭하였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청나라로부터 떼놓고 자국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의지가 강력하였다. 청나라는 프랑스와 무력충돌도 불사하면서 왕조의 위엄을 세우려 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현지의 지휘관을 교체하고 정책을 주도하던 군기처의 구성원을 전면 교체하였다. 우리는 청나라의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베트남을 둘러싼 프랑스와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

4. 맺음말: 외교, 권력 그리고 언론

1864년 청나라는 서양 무기의 도움을 받아서 태평천국을 진압하였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 열강을 막아내기 위하여 양무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884년에 軍機處 구성원이 모두 교체되는 甲申易樞가 일어났고,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 두 사건의 관계를 추적해보면, 청나라의 정치세력이 대외문제를 어떻게 국내정치에 이용하였고, 당시 언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당시 청나라 정치가 안고 있던 문제점은 무엇인지

는 다음과 같다. 「論中國不可不一戰」(7.16)·「論中國目下情形惟有一戰」(7.17)·「論法人妄想」(7.19)·「論戰臆說」(7.22)·「論中國人心不可不一戰」(7.23)·「中西和戰利害說」(7.26)·「綜論中國防務」(7.31)·「書本報西人傳言後」(8.4)·「言和末議」(8.5)·「論法事近日情形」(8.6)·「論撤兵太速」(8.8)·「言戰」(8.9)·「論法人不應擾華地以速禍」(8.10)

파악할 수 있다.

1864년 이후, 청나라는 함풍시대의 내우외환으로부터 벗어나서 강국이 되기 위하여 서양의 군사기술을 받아들이는 양무운동을 시작하였다. 청나라의 권력은 慈禧太后와 恭親王의 협력 속에서 중흥과 쇄신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보수파는 양무운동을 서양 야만인들에 대한 굴복이라고 여겨서 반감을 가졌다. 1870년대에 보수파는 조정의 굴욕적인 대외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天津教案(1870)·마가리사건(1875)·伊犁사건(1879) 등을 거치면서 유화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더욱 세졌다. 보수파 중에서 張之洞과 李鴻藻의 지지를 바탕으로 같은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淸流로 불렸고, 張佩綸과 陳寶琛은 상주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1880년 프랑스는 북베트남까지 자국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하여 군사행동을 시작하였다. 청나라에서 청류를 포함한 보수파는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당시 외교정책은 군기처와 총리아문을 장악하고 있던 恭親王이 주도하고 있었고, 恭親王은 베트남 문제에 크게 간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갖고 있었다. 총리아문은 李鴻章을 통해 프랑스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1881년 12월, 병상에서 일어난 慈禧太后가 정치에 복귀하였고, 직접 대외정책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베트남문제를 둘러싸고 프랑스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한 때 반란의 우두머리라는 낙인을 찍었던 劉永福과 협력하여 프랑스군에 맞서 군사행동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1882년 5월에 프랑스군은 하노이 점령하였고, 프랑스는 선떠이(1883.10), 박닌(1884.3), 타이응우옌(1884.3)까지 점령하였다.

1884년 3월 26일, 베트남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에 慈禧太后는 현지에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廣西巡撫 徐延旭과 雲南巡撫 唐炯를 파면하고, 후임으로 李鴻章의 사람

이었던 潘鼎新과 고령의 張凱嵩을 임명하였다. 두 사람의 교체는 더 큰 파도의 서막에 불과하였다. 4월 8일, 慈禧太后는 자리를 보전하는데 급급한 "복지부동"의 자세를 문제 삼아 恭親王을 비롯한 軍機處의 구성원을 전원 파면하였고, 軍機大臣이 總理衙門의 總理大臣을 겸직하는 체제도 폐지하였다. 그리고 軍機處는 軍機大臣이 아닌 醇親王 奕譞에게 사실상 지휘하게 함으로써 정식 관직 밖에 태후의 사적인 秘線이 만들어졌다.

1884년 5월 11일, 天津에서 李鴻章과 푸니에르는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의 조약 인정, 청나라 군대 철수, 배상금 불문 등을 내용으로 李福協定을 체결하였다. 李福協定은 새롭게 구성된 軍機處와 總理衙門이 대외정책에서 첫 번째로 얻은 결과물이었다. 외교와 정책결정기구의 구성원을 전면적으로 교체한 이유는 안일한 직무수행이었다. 그런데 막상 새로운 구성원들이 첫 번째로 진행한 일은 과거와 같이 李鴻章을 통해 프랑스와 협상하는 것이었고, 慈禧太后는 그것을 재가하였다. 결국 慈禧太后는 醇親王과 힘을 합쳐 외교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빌미로 恭親王을 제거한 것이었다. 경험이 부족한 인물들이 軍機處와 總理衙門의 자리에 앉으면서 내정과 외교에서 그 지위와 권위는 약해졌다. 결국 대외문제는 국내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지렛대로 이용되었고, 보수파의 양무와 외교에 대한 공격은 왕조의 위신이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申報』는 대체로 청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베트남에서 프랑스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 입장은 대체로 張之洞이나 李鴻藻를 중심으로 하는 청류의 관점을 따르고 있었다. 1882-1883년에는 청나라의 번속 베트남을 보호해야 변방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논조의 기사가 많았다. 1884년 李鴻章과 푸니에르 사이에 협상이 진행될 때도 화친과 전쟁의 양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기사가 등장하였다. 『申報』는 베트남문제의 경

우 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비교적 상세하게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申報』의 관계자가 甲申易樞에 대해 인지한 것은 5일 뒤인 4월 13일이었고, 기사가 실린 것은 4월 15일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의 기사는 실리지 않았다. 이점은 『申報』가 만주인 황족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내부의 핵심 인사를 정보원으로 갖고 있지 못하였고, 조정 내부의 소식은 공식적인 「京報」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申報』는 국내외 소식을 청나라 중남부 지역의 관리와 지식인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청나라 사회는 아직까지 조정에서 정치를 주도하였고, 『申報』는 제도 밖에서 광고 수입을 재원으로 발행되어 국내외 소식을 전달하는 기관이었다.

이 글은 1884년 4월 갑신역추가 일어나는 과정을 대내외정책을 두고 벌어진 정치세력들 사이의 갈등과 베트남문제를 둘러싼 외교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당시 청나라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조선문제와 관련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확한 정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 청나라 권력구조의 변화를 더 입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의 정책까지 포함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明淸實錄』(臺灣中央硏究院 歷史語言硏究所,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申報(1872-1949)』(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申報數據庫,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中國史學會編, 『中法戰爭』1-5, 上海人民出版社, 2000.
張開沅 主編, 『淸通鑒』, 岳麓書社, 2000.
翁同龢, 『翁同龢日記』 第二冊, 北京:中華書局, 1989.
趙爾巽 主編, 『淸史稿』, 中華書局, 1987.
王鐘翰 點交, 『淸史列傳』, 中華書局, 1987.
張佩綸, 『澗于集』, 臺北:文海出版社, 1967.
朱壽朋 編, 『光緖朝東華錄』, 中華書局, 1958.

2. 논문 및 단행본

이영옥, 「洋務, 淸流 그리고 甲申易樞(1884)」, 『인문연구』, 인문과학연구소, 2019.
문명기, 「臺灣事件(1874) 이후 淸朝의 臺灣經營과 建省方案의 형성」, 『역사학보』 194, 2007.
손준식, 「청조의 대만 인식과 정책」, 『근대중국연구』 제1집, 2000.
崔熙在, 「光緖初 洋務經世論의 발전과 분기」, 『단국대 논문집』 30, 1996; 「光緖初 淸議經世論이 발전과 그 지향」, 『史學志』 第29輯, 1996; 「光緖初 權力關係의 변화에 대하여」, 『동양사학연구』 제55집, 1996. 「光緖初 體制整備에 관한 一試論」, 『東洋學』 25, 1995.

張振鵬, 「福祿諾節略與中法戰爭兩個階段的轉變–從《泰晤士報》的一篇報道說起」, 『近代史硏究』 2017-07.
郭衛東, 「論晚淸時代的地方外交」, 『廣東社會科學』 2017-04.
劉增合, 「左宗棠西征籌餉與淸廷戰時財政調控」, 『近代史硏究』 2017-02.
汪榮祖, 「高瞻遠矚者的寂寞:郭崇燾與晚淸政局」, 『史林』 2017-02.
洪梅芬, 『"一定把報紙辦到上海去"–范長江與上海《解放日報》創刊」, 『檔案春秋』 2016-05.
李章程, 「淸代提塘與公文傳遞」, 『檔案學通訊』, 2015-03.
楊秀雲, 「赫德與晚淸中外約章硏究」, 湖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
邱志紅, 「60餘年來國內洋務運動史硏究述評」, 『蘭州學刊』 2014-12.
葛夫平, 「新中國成立以來的中法戰爭史硏究」, 『史學月刊』 2014-07.
方英, 「合作中的分岐–馬嘉理案交涉再硏究」, 『史學集刊』 2014-07.
李建平, 「〈里瓦幾亞條約〉對淸政府外交的考量」, 『黑龍江史地』 第336期, 2014.
梁東梁, 「左宗棠與晚淸邊疆危機」, 『東北史地』 2014-02.
潘佳, 『潘祖蔭硏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吳仁安, 「明淸時期中央朝廷與地方關係中的江南著姓望族」, 『江南大學學報』 2013-07.

周琦、陳素娟,「晚清中國外交困局的回顧與反思–以天津教案爲例」,『湘潭大學學報』2013–03.
紀寧,「關于潘鼎新軍政生涯評價」,『重慶科技學院學報』2012–14.
黃明,「封疆大吏張凱嵩」,『廣西文史』2012–2.
陸方・李之渤,「晚清淮系集团研究–淮軍、淮將和李鴻章」,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11.
趙宏林,「晚清地方外交研究」,湖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劉國華,「南北洋大臣參與晚清外交的主要特徵」,『成都大學學報』2010–05.
關威,「李鴻章曾紀澤對中法戰爭的態度」,『歷史檔案』2010–02;「中法戰爭前李鴻章與寶海, 脫利古談判述論」,『韓山師範學院學報』2005–10;「李鴻章與中法戰爭論析」,『安徽史學』2002–03.
屈春海・倪曉一,「馬嘉理被殺案件的審理」,『歷史檔案』2007–11.
王瑞・張立勝,「試論晚清保守派的外交主張」,『哈爾濱學院學報』2006–07.
羅國干,「美查時期『申報』的經營之道」,『廣西大學學報』2006–03.
曹必宏,「赫德與中法談判(1884~1885)」,『歷史檔案』2005–03.
李峰,「曾紀澤與中法戰爭時期的英國調停」,『安徽史學』2004–3.
蔣躍波,「試評曾紀澤的近代外交思想」,『安徽史學』2004–3.
李育民,「論清政府的信守條約方針及其變化」,『近代史研究』2004–02.
史革新,「程朱理學與晚清"同治中興"」,『近代史研究』2003–6.
董叢林,「"迷拐"、"折割"傳聞與天津教案」,『近代史研究』2003–03.
陳潮,「19世紀後期晚清外交體制的重要特點」,『學術月刊』2002–07.
楊發祥,「奕訢與晚清外交近代化」,『首都師範大學學報』2002–05.
黃振南,「中法戰爭史研究百年回眸」,『近代史研究』2002–03.
夏宏圖,「清代報紙淺述」,『歷史檔案』2001–02.
廖宗麟,「試論中法戰爭在中國近代史的地位和作用」,『學術論壇』2000–06.
李志茗,「論郭崇燾的外交理論及實踐」,『史林』2000–03.
黃振南,「山西之役起因與敗因初探」,『軍事歷史研究』1999–11;黃振南,「中法山西之役始末」,『廣西社會科學』1997–04.
施渡橋,「論中法戰爭中的主戰派與主和派」,『軍事歷史研究』1999–03.
孫春芝,「也論曾國藩辦理天津教案"內疚神明外慚清議"」,『近代史研究』1998–09.
高路,「論清政府對外方略的改變」,『華中師範大學學報』1998–05.
趙琳,「張佩綸與中法戰爭」,『學術月刊』1997–02.
李侃・李占領,「清流派與中法戰爭」,『社會科學戰線』1996–02.
李侃・李占領,「清流派與中法戰爭」,『社會科學戰線』1996–01.
吳國强,「劉永福傳略」,『廣西史地』1995–11.
范啓龍,「"清流派"陳寶琛與中法戰爭」,『福建師範大學學報』1995–07.

張勤,「試從湘淮關係看淮軍軍系形成的軌迹」,『學術界』1995-4.
施渡橋,「論中法戰爭中的主戰派與主和派」,『軍事歷史研究』1993-04.
孔祥吉,「甲申易樞與中法戰爭」.『中國人民大學學報』1989-01.
趙春晨,「晚淸洋務派與天津教案」,『歷史研究』1988-05.
唐上意,「中法戰爭中的張之洞」,『歷史研究』1983-05.

유인선,『베트남의 역사』, 이산, 2018.
이영옥,『견제받는 권력』,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윌리엄 T. 로, 기세찬 옮김,『하버드 중국사 청: 중국최후의 제국』, 너머북스, 2014.
임마누엘 C.Y. 쉬, 조윤수・서정희 옮김,『근현대중국사』, 까치, 2013.
유소민 지음, 박기수・차경애 옮김,『기후의 반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린위탕, 김정희 옮김,『베이징이야기』, 이산, 2001.

廖宗麟,『中法戰爭史』, 天津古籍出版社, 2002.
許穎,『淸代文官行政處分程序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黃瑚,『中國新聞事業發展史』, 復旦大學出版社, 2001.
陳重金(Trần, Trọng Kim) 著, 戴可來 譯,『越南通史』, 商務印書館, 1992.
載平・徐瑞芳,『淸末四十年申報史料』, 新華出版社, 1988.
梁家祿 外,『中國新聞業史』, 廣西人民出版社, 1984.
方漢奇,『中國近代報刊史』上冊, 山西人民出版社, 1981.
李宗侗・劉鳳翰,『李鴻藻先生年譜』, 臺灣: 商務印書館, 1969.

J. F. Cady, The Roots of French Imperialism in Eastern Asia, Ithaca, N.Y, 1967.

(투고일: 2021. 8. 9 심사완료일: 2021. 9. 16 게재확정일: 2021. 9. 24)

이영옥
소 속: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전자우편: qingstory@hanmail.net

[Abstract]

Qing Dynasty's Vietnam Policy and Changes in Power Structure in 1884

Lee, Young-ok

In 1884, all members of Grand Council were replaced [甲申易樞], and the war with France took place. If we tra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events, we can understand how the political forces of the Qing Dynasty used external problems in domestic politics, what role the media played at the time, and what problems the Qing politics had at the time.

In 1880, France began military action to keep the North Vietnam under its control. Conservatives, including Qingliu[淸流], ordered a strong response. On March 26, 1884, in the news that he was defeated in the battle of Vietnam, Dowager Cixi asked for responsibility for not carrying out the operation properly in the area, and dismissed and appointed a successor to the new and old man. On April 8, Dowager Cixi dismissed all members of Grand Council, which was replaced by her minions. After that, it became the private office of Dowager Cixi.

In general, Shenbao[申報] received the information from foreign countries and understood the local situation in relatively detail, However, Shenbao was not able to grasp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It was April 15, seven days after Shenbao published the article reporting with full replacement of Grand Council members.

Key words: Jiashenyishu, Grand Council, Sino-French War, Prince Gong, Dowager Cixi, Conservatives, Lihongzhang, Shenbao